

FY2027 미국 국방부 예산안 분석

군사전략, 산업정책, 전쟁수행능력, 동맹전략, 기술패권, 의회정치가 결합된 국가전략 문서

정책보고서 한국어본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앞서 작성된 FY2027 U.S. Department of Defense Budget Policy Report 의 한국어본이다. 수치는 원문 보고서의 요청액·추정액·확정액 구분을 유지했으며, FY2027 예산은 아직 의회 심의 전후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예산요청안으로 취급한다.

구분	FY2026 확정	FY2027 요청	증가폭
국방부 총 예산자원	1 조 90 억 달러	1 조 4,500 억 달러	+4,409 억 달러 / +44%

핵심 판단

- FY2027 국방부 예산안은 단순한 연례 지출계획이 아니라 사실상 동원체제형 국가안보 프로그램이다.
- 핵심 방향은 대테러·해외 원정 중심의 포스트 9·11 군사모델에서 중국 견제, 핵전력 현대화, 미사일 방어, 조선·탄약·드론·AI 중심의 대국 경쟁 준비모델로 이동하는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은 조달과 연구개발·시험·평가(RDT&E)가 합쳐 약 7,568 억 달러에 이르며, 전체 요청액의 절반을 넘는다는 점이다.
- 다만 이 예산은 요청액이며, 확정 예산이 아니다. 의회 세출과 보충예산, 특히 이란·중동 작전비용에 따라 최종 규모와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1. 총괄 예산 구조

백악관은 FY2027 국방예산을 약 1 조 5,000 억 달러 규모로 설명하지만, 국방부 Comptroller 자료의 보다 정확한 총액은 1 조 4,500 억 달러이다. 이 총액은 1 조 1,000 억 달러의 기본 재량예산 권한과 3,500 억 달러의 의무·조정형 재원으로 구성된다.

범주	FY2027 요청액	의미
기본 재량 국방예산 권한	1 조 1,000 억 달러	정규 세출법을 통해 매년 의회가 통제하는 국방 지출 권한
의무·조정형 국방 재원	3,500 억 달러	통상 세출 구조 바깥에서 요청된 특별 방위 재원
보충예산	요청안에는 0 달러	다만 이란·중동 작전 지속 시 별도 보충예산 가능성 존재
국방부 총 예산자원	1 조 4,500 억 달러	국방부 Comptroller 자료 기준 공식 총액
행정부 공개 표현	약 1 조 5,000 억 달러	백악관·국방부의 대외 설명용 반올림 수치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은 정부기관이 계약·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의회가 부여하는 법적 권한이다. 지출액(outlays)은 그 권한에 따라 실제 현금이 지급되는 금액이다. 조달, RDT&E, 조선, 군사건설, 핵전력 현대화는 계약과 지급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발생하므로, 예산권한과 지출액은 같은 해에 일치하지 않는다.

2. 주요 세출 범주별 배분

주요 범주	FY2027 요청액	비중	전략적 의미
군 인건비	2,051 억 달러	14.1%	급여, 복지, 병력 규모, 모집·유지
운영·유지(O&M)	4,306 억 달러	29.7%	준비태세, 훈련, 작전, 정비, 전진 배치
조달	4,131 억 달러	28.5%	함정, 항공기, 미사일, 드론, 탄약, 차량
RDT&E	3,437 억 달러	23.7%	SI, 자율무기, 미사일 방어, 우주, 차세대 플랫폼
회전·관리기금	263 억 달러	1.8%	군수·운영자금, 작업자본, 관리기금
군사건설	268 억 달러	1.9%	기지, 조선소, 주거, 기반시설
군 가족주택	44 억 달러	0.3%	가족주택 건설·운영·유지
총계	1 조 4,500 억 달러	100%	국방부 전체 요청 예산자원

조달과 RDT&E의 합계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이 예산이 단순한 병력 유지 예산이 아니라, 향후 전쟁수행 능력을 새로 설계하는 투자형 예산임을 보여준다.

3. 범주별 분석

3.1 군 인건비: 급여, 병력 유지, 전투력의 사회적 기반

FY2027 요청안의 군 인건비는 2,051 억 달러이다. 행정부는 E-5 이하 장병에게 7%, E-6 부터 O-3 까지 6%, O-4 이상에게 5%의 차등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모병난 완화를 위한 전략적 인건비 투자이다.

미군의 전투력은 첨단무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주거, 가족생활, 전역 후 경력, 의료, 배치 피로도, 경제적 안정성이 모두 전투력의 기반이다. 이 예산은 하급 장병층의 사기를 국방정책의 핵심 변수로 본다.

3.2 운영·유지(O&M): 실제 전쟁수행 가능성을 좌우하는 예산

O&M 요청액은 4,306 억 달러로 단일 범주 중 가장 크다. 이는 훈련, 정비, 연료, 기지운영, 작전배치, 예비부품, 전투사령부 활동을 뒷받침한다.

공식 자료는 핵심 준비태세와 지원역량에 1,900 억 달러 이상을 배정하며, 그중 작전·훈련·정비에 1,311 억 달러, 준비태세 지원에 592 억 달러가 포함된다. 함정이 정비 지연에 묶이고, 항공기의 임무가능률이 낮고, 육군 부대가 충분한 훈련주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명목상 병력 규모는 실전 전투력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3.3 조달: 미국의 병기고를 다시 채우는 예산

조달 요청액은 4,131 억 달러이다. 이 범주는 항공기, 함정, 미사일, 탄약, 드론, 지상체계, 산업기반 장비를 포함한다. FY2027 예산안의 조달 증가는 미국이 장기전과 고강도 대국 전쟁에 필요한 병기고를 다시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조달 영역	FY2027 핵심 방향
탄약·미사일	대규모 비축 확대, 다년 조달, 생산라인 증설
조선	전투함, 지원함, 잠수함, 조선소 역량 강화
미사일 방어	Golden Dome 및 광범위한 미사일 패배·방어체계
항공전력	F-35, F-15EX, F-47, B-21, KC-46, 무인 플랫폼
드론·자율체계	Drone Dominance, 저가·대량·소모형 전력
산업기반	핵심광물, 공급망, 잠수함·해양 산업기반, 생산능력 확대

3.4 RDT&E: 기술패권 예산

RDT&E 요청액은 3,437 억 달러이다. 이는 AI, 자율체계, 우주, 사이버, 첨단항공기, 미사일 방어, 극초음속, 지휘통제, 미래전 개념을 재설계하는 예산이다.

특히 AI와 CJADC2 관련 예산은 585 억 달러 규모로 제시된다. 여기에는 460 억 달러 규모의 “sovereign AI Arsenal” 의무재원, 68 억 달러의 플랫폼·업무흐름 AI 통합, 23 억 달러의 Maven Smart System 및 Joint Fires Network 관련 예산이 포함된다. 이는 AI를 단순한 사무 자동화가 아니라 센싱, 표적화, 군수, 정비, 의사결정, 무인체계, 합동지휘통제의 핵심 요소로 편입하려는 시도이다.

3.5 핵전력 현대화

핵전력 예산은 714 억 달러로 제시된다. 주요 항목은 Columbia 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및 잠수함 산업기반 162 억 달러, B-21 폭격기 61 억 달러, Sentinel/GBSD 46 억 달러,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LRSO) 15 억 달러 등이다.

이는 미국이 재래식 전력만이 아니라 핵 3 축 전체를 동시에 현대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전략적 배경은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고려한 핵 억제이며, 특히 중국의 핵전력 확대가 미국의 핵전략 계산을 바꾸고 있다.

3.6 Golden Dome 과 차세대 미사일 방어

요청안은 Golden Dome에 179 억 달러, 추가 미사일 패배·방어에 679 억 달러를 배정한다. Golden Dome은 우주기반 센서, 우주기반 요격체, 운동·비운동 미사일 방어능력을 결합한 차세대 다층 국토방어 구상으로 설명된다.

정치적 매력은 크다. 국토방어라는 명분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적 위험과 재정적 위험도 크다. 우주기반 아키텍처가 확대될수록 생애주기 비용은 급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다른 국방 우선순위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3.7 조선과 해군력

해양전력 예산은 872억 달러이며, 전투함 18척이 포함된다. 공식 목록에는 Columbia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1척, Virginia급 공격잠수함 2척, DDG-51 구축함 1척, 호위함 1척, America급 강습상륙함 1척, LPD-17 1척, 중형상륙함 6척, 잠수함 지원함 2척, 함대 유조선 2척, 감시함 1척이 들어간다.

이는 인도·태평양 문제에 대한 직접적 응답이다. 중국을 억제하려면 잠수함, 군수지원함, 상륙전력, 분산해양작전, 대함미사일, 정비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조선산업의 병목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숙련노동, 건설거, 핵잠수함 공급망, 협력업체, 납기관리, 품질관리 모두가 제한요소이다.

3.8 탄약과 미사일 비축

중요 탄약에는 529억 달러가 제시된다. 목표는 12개 핵심 탄약의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다년 조달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홍해, 이란 관련 작전은 현대전이 정밀무기, 방공요격체, 포탄, 로켓, 미사일을 평소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소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상정할 경우 장거리 대함미사일, 방공요격체, 극초음속 무기, 수중무기, 장거리 스탠드오프 화력의 수요는 더 커진다. 이 항목은 FY2027 예산의 가장 중요한 전쟁수행능력 지표 중 하나다.

3.9 AI, 드론, 자율무기

무인체계 분야에는 큰 폭의 투자가 제시된다. Drone Dominance에는 536억 달러가 배정되며, 그중 392억 달러는 자율체계 조달, 국내 생산, 첨단 역량에, 144억 달러는 counter-UAS에 투입된다. 또한 공중·지상·해상 자율 및 원격운용 체계 전반에 540억 달러가 제시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작전은 저가 드론, 배회탄약, 자율센서, 대드론 방어가 현대전의 주변 장비가 아니라 전장의 경제성과 살상력을 바꾸는 핵심 수단임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고가의 정교한 플랫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급체계와 대량·저가·분산·소모형 체계를 결합해야 한다.

3.10 방위산업기반과 핵심광물

방위산업기반 관련 투자는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제시된다. 주요 항목에는 핵심광물 488억 달러, IBAS 및 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형 산업기반 지원 723억 달러, Office of Strategic Capital 신용수단 202억 달러, 잠수함·해양 산업기반 87억 달러,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18억 달러 등이 포함된다. 일부 항목은 서로 중복되므로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명백한 산업정책이다. 희토류, 에너지텍스, 반도체, 조선소, 미사일 모터, 공작기계, 협력업체, 숙련노동을 국가안보 자산으로 취급한다.

3.11 인도·태평양, 중국 억제, 대만

인도·태평양 구상은 명시적이다. 예산안은 중국 억제, 제1도련선 방어, 동맹 상호운용성, 전진기지, 미사일, 방공, 분산작전, 군수와 예비전력 확보를 강조한다.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에는 117억 달러가 제시된다. 대만 관련 항목은 20억 달러이며, 그중 10억 달러는 Taiwan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 10억 달러는 대통령인출권으로 이전된 미국 재고를 대체하는 비용이다.

3.12 중동, 이란, 이스라엘, CENTCOM

기본 예산요청안에는 이스라엘 지원 관련 USCENTCOM 작전, 방호, 억제 활동을 위한 44억 달러가 포함된다. 또한 Counter-ISIS Train and Equip Fund에는 3억 300만 달러가 제시되어 시리아, 이라크·쿠르드 세력, 레바논, 요르단 관련 지원에 쓰인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이란 전쟁 비용이다. 예산안은 이란·중동 작전의 전체 재정효과가 확정되기 전에 작성된 성격이 강하다. 작전이 지속되면 보충예산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항목	예산상 지위
이스라엘/CENTCOM 기본 지원	FY2027 기본예산에 요청
이란 전쟁 비용	원 요청안 밖의 추가 부담 가능성, 보충예산 압력 존재
Counter-ISIS	요청액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역 안정화 기능 유지
지역 방공·미사일 방어	광범위한 미사일 방어·탄약 계정에 포함

3.13 우크라이나

FY2027 국방부 Comptroller 개요는 우크라이나를 대만, 이스라엘/CENTCOM, Golden Dome, PDI, 탄약과 같은 중심 예산 동인으로 전면 배치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정규 국방수권·세출 구조로 들어갈지, 아니면 별도 보충예산으로 처리될지이다.

4. 전략적 의미

4.1 대테러에서 대국전쟁 준비로

예산의 무게중심은 중국이다. 함정, 잠수함, 미사일, 공군력, 우주, AI, 드론, 군수, 산업기반, 대만 관련 계정이 이를 보여준다. 이는 미국 군사전략이 다시 고강도 대국전쟁 가능성에 맞춰 재구성되고 있음을 뜻한다.

4.2 산업동원의 귀환

이 예산은 단순히 더 많은 무기를 사는 예산이 아니다. 생산능력을 사는 예산이다. 미사일, 드론, 함정, 핵심광물, 에너지텍스, 요격체, 예비부품을 전시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 한다.

4.3 국토 미사일 방어외 초대형 사업화

Golden Dome 은 국토방어라는 정치적 명분을 가진 초대형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기술·재정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며, 장기적으로 다른 군사 우선순위를 밀어낼 위험이 있다.

4.4 AI 와 자율체계의 작전교리화

AI, CJADC2, 드론, counter-UAS, 자율체계 항목은 AI 가 실험실 기술에서 실제 전력 설계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방산업체뿐 아니라 클라우드, 데이터, 소프트웨어, 센서, 반도체 기업에도 중대한 시장신호다.

4.5 동맹은 수혜자가 아니라 부담분담 주체

예산안은 동맹국이 자국 지역 방어를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를 명시한다. 미국은 동맹을 계속 중시하지만,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재설계하고 있다.

5. 정치적 논쟁

행위자	이해관계와 예상 입장
공화당 주류	중국 견제, 미사일 방어, 조선, 핵전력, 탄약, 산업기반 예산을 강하게 지지할 가능성
재정 보수파	1.45조 달러 규모, 의무·조정형 자원 활용, 부채 증가에 문제 제기 가능
민주당	장병 복지, 동맹 지원, 일부 중국 억제에는 동의하되 Golden Dome, 핵전력, 이란 전쟁, 국내예산 삭감과 충돌할 수 있음
세출위원회	대통령 예산요청보다 의회의 Article I 예산권을 중시하며 계정별 통제와 조건부 지출을 요구할 가능성
군산복합체	조선, 미사일, 핵전력, 우주, AI, 드론, 핵심광물, 탄약 분야에서 큰 수혜
반전 여론	이란 전쟁 비용과 중동 개입 확대를 국방예산 비판의 핵심으로 삼을 가능성
동맹국	미국 억제력 투자는 환영하지만 방위비 증액 압박과 거래적 외교를 우려
미군 조직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인력, 정비, 조달지원, 작전피로 문제 해결을 요구

6. 산업적 영향

FY2027 예산안은 방위산업 전체에 단기 매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다년 조달, 생산라인 확대, 공급망 재구축, 숙련노동 투자, 정부 신용수단은 장기 수요신호를 만든다.

수혜 가능 부문	수혜 이유
조선 및 해군 공급망	Columbia, Virginia, 상륙함, 지원함, 유조선, 조선소 현대화
미사일·탄약 제조업체	529억 달러 규모의 중요 탄약 확대, 다년 조달
방공·미사일 방어 기업	Golden Dome, Patriot, THAAD, 국토·지역 미사일 방어
핵전력 현대화 기업	Columbia, B-21, Sentinel, LRSO, NC3
우주 기업	미사일 경보, 우주기반 센서, 추적체계, 회복력 있는 위성망
AI·클라우드·데이터 기업	AI Arsenal, CJADC2, Maven, 데이터 인프라
드론·counter-UAS 기업	Drone Dominance, 무인·대드론 전력
핵심광물·첨단제조	방위산업기반과 공급망 재편
잠수함 산업기반	해양 산업기반, 협력업체, 조선소 투자

7. 위험 평가

1. 의회 리스크: 1 조 4,500 억 달러 요청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역사적으로 큰 규모의 국방예산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2. 보충예산 리스크: 이란·중동 작전이 지속되면 원 요청안 밖의 추가 전비가 발생할 수 있다.
3. 산업 흡수능력 리스크: 조선소, 미사일 공장, 에너지공학 공급망, 핵전력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흡수하기 어렵다.
4. 비용증가 리스크: Golden Dome, Sentinel, Columbia 급, B-21, 조선, AI 지휘통제체계는 모두 비용초과 가능성이 있다.
5. 전략·자원 불일치: 중국 억제, 핵현대화, 이스라엘 지원, 이란 대응, 산업기반 재건, 유럽·우크라이나, 국토 미사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even 1.45 조 달러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6. 재정 리스크: 국방비가 GDP 대비 약 4.5% 수준으로 접근하면 전략적으로는 설명 가능하나 재정적자, 이자비용, 세금정치, 국내지출 논쟁과 충돌한다.

8. 최종 결론

FY2027 미국 국방부 예산요청안은 공식적인 대국전쟁 선포 없이 제시된 전시준비형 예산이다. 이 예산은 병기고 재건, 억제력 강화, 미사일 방어 확대, 핵전력 현대화, AI·자율체계 가속, 인도·태평양 전진태세, 동맹 부담분담, 방위산업기반 재건을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결합한다.

가장 강한 논리는 분명하다. 미국은 다음 10 년을 중국, 러시아, 이란, 미사일 확산, 드론전, 산업기반 경쟁이 동시에 압박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 이 예산은 그 세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약한 지점도 분명하다. 미국은 이 거대한 군사력 재건을 이란 전쟁비용, 핵전력 재자본화, 조선 지연, Golden Dome 불확실성, 우크라이나 지원 논쟁, 동맹 부담분담 갈등, 국내 재정압박 속에서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전면 거부가 아니라 수정 통과다. 의회는 중국 억제, 탄약, 조선, 미사일 방어, 핵전력, 드론, AI, 산업기반 우선순위는 대체로 보존하되, 재원구조와 계정별 배분을 조정하고, Golden Dome 과 이란·중동 작전비용에 더 강한 감독과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

장기 방향은 명확하다. 미국 군사력은 대테러 우위에서 산업화된 억제, 기계속도 전쟁, 미사일 방어 아키텍처, 핵전력 현대화, 해양경쟁, 동맹 부담분담 강제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예산안은 단순한 지출계획이 아니라, 군사 생산능력 자체를 국가권력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선언이다.

9. 주요 출처

- U.S. Department of Defense Comptroller, FY2027 Budget Request Overview Book: https://comptroller.war.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27/FY2027_Budget_Request_Overview_Book.pdf
- The White House, FY2027 Budget Materials: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6/04/budget_fy2027.pdf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Budget Authority and Outlays: <https://www.cbo.gov/publication/57660>
-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Chairman Rogers Statement on FY2027 Defense Budget: <https://armedservice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6567>
-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Democrats, Ranking Member Adam Smith Statement: <https://democrats-armedservices.house.gov/2026/4/ranking-member-adam-smith-opening-statement-for-full-committee-hearing-on-department-of-defense-fy27-budget-request>

- ABC News, Hegseth faces lawmakers amid Iran war cost scrutiny: <https://abcnews.com/Politics/hegseth-face-lawmakers-time-iran-war-started/story?id=132459382>
- Reuters, Golden Dome cost estimates and congressional scrutiny: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us-budget-watchdog-estimates-golden-dome-will-cost-12-trillion-well-above-2026-05-12/>
- United States Studies Centre, Trump, Congress and the battle for the defence budget: <https://www.ussc.edu.au/trump-congress-and-the-battle-for-the-defence-budget>
- AP News, FY2027 defense budget hearing and Ukraine/Iran questions: <https://apnews.com/article/158574195f3fe49ad48388406916d181>
- Reuters, FY2026 defense bill and Ukraine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 references: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troop-pay-ukraine-social-issues-us-house-passes-massive-2026-defense-bill-2025-12-10/>